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9월 6일 ( 제810호 )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예배워싱및인터넷생방송



봉우컬럼

## 올인하라

내 손자인 학산이에게 한 말이다.  
 “학산아!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 자들의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네가 나를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두드려보지도 않고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지금 하는 공부가 고통스럽다면 공부하지 말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라. 그러나 네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고통스럽더라도 멀리 보고 인내하며 오늘의 계란을 먹지 않고 암탉을 키운다면 훗날 암탉이 수없는 알을 낳아 주는 것처럼, 네가 지금 놀지 않고 공부에 전념한다면 훗날 부귀영화는 물론 명예를 갖게 되고 후대까지 아름다운 삶을 넘겨줄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새벽 한 시가 되어도 ‘학산아, 자냐?’ 하고 방문을 열어보고, ‘너는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꿈은 잘 때 꾸지만, 꿈을 이루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노력을 해야 이룰 수 있단다.”  
 이렇게 그를 격려하고 독려했더니 그가 학교에서 1등을 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조출한 파티를 열어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그의 할머니인 박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1등이 뭐 대단해요? 밥 먹고 공부만 하는데 못할 게 뭐 있나요?”라고 했다.  
 박 권사님 말에 나는 크게 깨달았다. 그렇다. 목사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면 왜 능력이 없고, 왜 설교를 못하고,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차선이란 걸 모른다. 대강도 모른다. 항상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성공요인을 압축하면 ‘선택과 집중’이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한다면 뜻 이룰 것이 없다. 분명한 선택과 집중이 너를 성공자로 만들 것이다.

#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전도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병든 영혼이다!”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를 인도하실 때마다 꼭 외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추구해야할 영적 생활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

도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단 한 영혼이라도 실족치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역사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충만한 뜻과 계획이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3:17~19).  
 목사님은 작금의 우리 교단이 병들어 있



이제는 총력 전도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길 잃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자!

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그야말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밟히게 될 뿐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5:13).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으로 진단해볼 때, 당신이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전

너무도 자명하다.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구원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따라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모든 지체가 연합하는 교회의 사명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이요 유언이다. 이를 수행하지 않는 성도나 교회는 더 이상 살았다 할 수 없다. 곧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친목단체일 뿐이다. “네가 말하기를

다고 진단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하지 않는 병이 가장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라고 자부하던 우리 생각에 충격을 던지는 말씀이었다.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스스로 안위하며 자족한 생각에 전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보아도, 시험 들어 떨어지는 영혼을 보고도 마치 감각이 없는 환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마11:17).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 코스타리카 집회

9월 15일(화) ~ 25일(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딤후4:1~8)



# 예방책이 최상책이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 때에 전도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질타하면서 '우리 교회가 병들었다'고 통탄했었습니다. 이 말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서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시대 목사였습니다. 그는 금요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28년 따라왔지만 교회가 병들었다고 말하시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진단해서 고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병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자각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눈이 안 보인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속이 쓰리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병은 초기에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은 대체로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3기다, 말기다, 온몸에 퍼져서 손을 쓸 수 없다며 사형선고를 내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죄는 회개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는 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각증상이 없는 죄, 인지 못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왜요?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그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식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마23:33).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의로운 자들인 줄 아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종말론이지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 조기진단은 암도 고친다

바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당연히 혼인잔치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니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어놓았다가 주인 앞에 다시 내놓을 때 다섯 달란트 남긴 자처럼 칭찬받을 줄 기대했다면 그것 역시 착각이니 너희들은 받은 달란트대로 일하여 남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배만 채우면서 주님의 오른편에 설 줄로 생각했다면 그것도 착각이니 너희들은 가난한 자, 외로운 자에게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착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적어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현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계3:17).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사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데 교회에게 '너희의 행위를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요 집사라면서 교회가 썩었다는 말을 듣고도 변민하지 않고 가슴에 찔림이 없다면 허울뿐인 목사요, 장로요, 권사, 집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요, 영적 문둥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가 살 가능성이 있을 때 하십니다. 의사도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운동해라, 수술하라고 권하지, 가

능성 없는 자에게는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것

실컷 먹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 할꼬"(행2:37)라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자 그날 3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대조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스테반의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마음에 찔려 스테반을 돌로 죽이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나는 어찌할꼬' 통탄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이시대 목사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강케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병

든 목사, 병든 장로, 병든 권사와 집사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을 만들어 예전보다 더 크게 쓰시려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 가정, 기업, 나라는 어디가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보이라'로 했습니다(딤후4:15). 성장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장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거나 병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는다면 지금 심하게 병

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진단하고 수술해야 합니다. 시

기를 놓치면 손을 쓸 수 없고, 결국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서 10장에 보면 배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염증을 느낀 하나님이 다신 그들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신물이 났으면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했지만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고, 그들과 관계를 끊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인을 인지해야 합니다. 요나의 말에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한 것처럼, 나단의 경고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평생에 말씀을 준행한 것처럼, 우리도 이번 기회에 영혼상태를 진단하고 수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후패해간다고 해서 덩달아 속사람까지 후패해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주의 일에 매진했던 것처럼, 그의 영성이 날로 진보했던 것

처럼, 우리의 영성은 날이 갈수록 그래야 합니다.

왜 영성이 후퇴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쫓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겉사람은 후패해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에 범사가 형통하는 복과 자손의 축복을 받았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다가 그의 영성이 바닥을 드러내어 결국 비참

##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팔죽 한 그릇을 쫓은 에서와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취한 야곱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렇듯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속사람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직분 놓고 손주나 봐야겠다 하는 분들, 이제 힘도 없으니까 전도 못하겠다 하는 분들, 나이 들어 기도 못하겠다 하는 분들, 지금 자신의 영성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병든 영혼을 수술하고 건강을 찾아야 무난히 천국에 입성하고, 주님을 뵈는 그 날 당당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주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6:63).

우리 교회는 이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조기 검진하고 처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3:34).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 교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겨자씨만한 믿음::

# 병이 있다면 약도 있다

하나님께서 자폐스펙트럼 치료의 세계로 인도하신 이후에는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었다. 진료 전 시간, 진료 이후 시간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처음 자폐증을 접하였을 땐 관련 권위자가 전무한 상태여서 심리치료, 운동치료, 최면치료, 뇌과학, 한의학, 신경학, 인지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자폐증을 치료하거나 연구하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였고, 치료방법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였다. 믿음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나로서는 수많은 위기상황 속에서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변의 기도로 최소한의 영적생활만 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폐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 이유이자 믿음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연구와 치료에 매진하였다.

하지만 자폐증을 치료하는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체력도 마음도 정신력도 모두 다 바닥이 났고, 옆친 데 달친 격으로 아내의 임신과정에서 임신유지가 힘든 상황까지 겹치면서 출근조차 하지 못하게 되자 환자들은 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점점 적자의 폭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년간의 노력과 결과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고,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주셨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으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스승님의 도움

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수술을 앞둔 아내에게 한약을 복용케 하였더니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좋아졌다 나 빠졌다를 반복할 때마다 스승님에게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를 걸어 한약과 침으로 버티었고, 출산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27주가 되어서 다행히 두 명의 쌍둥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 부원장에게 상담과 치료법들을 인수인계해주어 자리를 비우는 기간 동안 대신하여 환자들을 진료케 하였고, 능력이 좋은 직원들에게 운영을 맡기었더니 모두 열심히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었기에 확장 이전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렇듯 힘들었던 시기를 하나님의 응답과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무사히 넘길 수 있었으며, 직접적인 경험으로 한의사로서 한의학에 대한 놀라움을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병이 있으면 약도 있다. 같은 이치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답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그 답은 의외로 찾기 쉽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전과에 답이 있듯,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다 있다.

또한 스승이 많은 조언과 지침을 내리듯, 우리에게 영적 스승이신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풀린다.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가? 답은 분명히 있다. 멀리서 찾지 말고 늘 당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여쭙어라.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천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기셨다(롬10:13~15). 교인이라면 모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어떤 인생도 혼자서는 갈 수가 없다. 우리들 스스로의 힘만으로 무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인데, 그 중에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큰 은혜가 있다. 우리는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자리를 지키시는 목사님,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가끔 잊는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각자 개성이 있고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면모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자신의 단점으로 인해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연단하시는 때이다. 연단의 과정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어쩌다 시험에 들기도, 고통을 먹을 때

도, 두려움에 떠는 순간도,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롬8:28). 우리가 관계 속에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버티어내면,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나의 불룩한 부분이 상대방의 오목한 부분에 맞추어지고, 상대방의 불룩한 부분이 나의 오목한 부분과 맞추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같은 물이어도 젖소가 먹은 물은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은 물은 독이 된다.

잠시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악조차 선하게 쓰신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친밀하고 은혜로운 관계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군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찌어다  
(에스겔 33:7)



::하나님 편에 서는 삶::

##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타이밍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읽게 되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역시 목사님으로 정말 경건하신 분이셨다고 한다. 조그만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였는데, 교회를 위해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시다가 그만 1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다.

아들이었던 이 목사님은 그때 당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는커녕 그 담임목사인 아버지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목사님이 당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분은 바로 어머니였다. 목사인 남편이 그토록 싸늘한 시선이 되어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 회의감이 들 텐

데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자꾸 목사님에게 "네가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금식기도 하시는 중에 돌아가셨단다.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지. 그러니 자식인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몇 년 전, 어머니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처녀 시절 예수님을 영접한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의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를 하러 가셨다가 싸늘한 시선이 되어 돌아오셨던 그 밤이 생각났다고 한다. 누구의 관점에서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날에도 어머니

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마침내 서른 살 때 목회의 길로 들어서셨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를,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열매를 자식인 목사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거두고 있다고 고백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완벽하게 굴복시켜야 한다. 지금 당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신 성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한다(사55:8~9).

김경현

kyunghyunjudy.ki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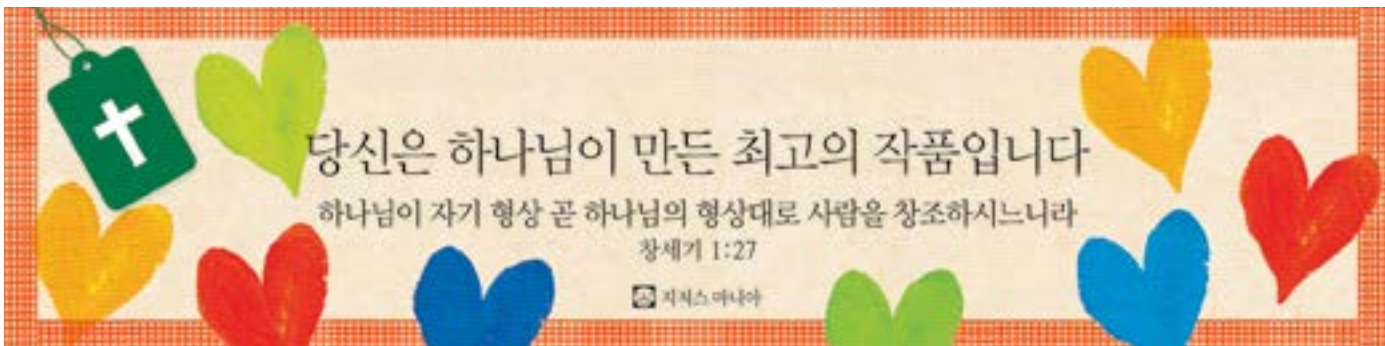
### 귀를 기울이세요

지난 8월 4일 DMZ 철책선 근처에서 수색중인 병사 2명이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여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기존의 미온적인 태도와 달리 현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발표하고 북한군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북심리전 방송을 하게 된다. 다른 때보다 이번 대북심리전은 최신가요를 트는 방법을 택하는데, 이는 북한병사들이 남한에 대한 동경심과 함께 정신무장해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 후 20일, 북한은 대북방송을 중단하라는 협박과 함께 연천지역일대에 포사격을 하였고, 아군은 즉각 대응사격을 한 후 전국에 진돗개를 발령하였다. 다음 날 21일,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한다. 대화가 지속되지만 협상은 타결되지 못한 채 양측은 준전시상태를 지속해나갔다. 25일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이 담긴 극적인 남북합의문 도출로 준전시상태는 해제된다.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되기 전, 실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금은 국민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이 순간, 이 나라 젊은이들의 밝은 부분을 보았다. 젊은이들이 혹여 전쟁이 난다면 나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예비역들이 자신의 전투복과 전투화 사진을 SNS에 찍어 올린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제대를 앞둔 병사들이 저마다 전역을 연기하며 이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하였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대한민국을 지키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두려움을 두려워 마!

요새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수학과목을 두려워한다지요. 그래서 꽤 많이들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하고 문제 푸는 능력이 타고나야 할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시카고대학 연구팀이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수학문제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는 학생들, 이게 꾀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수학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는 사고나 부상을 당했을 때와 같은 신체적 고통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적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지요.

수학에 대한 불안이 크면 클수록 아이들의 뇌는 계산을 하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수리

능력 등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불안이 크면 자신감이 있는 학생보다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학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평소 말을 잘 하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말을 못하게 되는 것도 두려움 때문이라고 스피치 전문가는 말합니다. 또한, 특정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에게 울무에 걸리게 된다고 잠언의 저자는 말했지요. 우리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노력이나 재능부족보다는 이 두려움이란 놈 때문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충분히 노력하고도 불안하고 두렵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보세요. 시험을 볼 때, 면접을 볼 때, 회의를 할 때, 발표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도와주신

다는 것이 믿어질 때,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고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껴보는 겁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라고 명하실 때, 보낼 자를 보내라고, 자신은 능력이 안 된다고 거절했었지요. 그랬던 그가 그 넓디넓은 홍해를 가르느 담대함을 갖게 된 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강물이 핏물이 되는 이적들을 하나 둘 체험하고 나서였기 때문입니다. 작고 세밀한 목표를 하나 둘 이뤄갈 때, 큰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도 하나님보다 결코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두려워마세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천재 화가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의 머리’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수백 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작품이지만, 이 작품은 버려진 쓸모없는 자전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버려진 자전거에서 황소의 머리를 본 후에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를 주저함 없이 작품으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낸 후에 안장에다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 작품의 이름을 ‘황소의 머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피카소는 만족해하며 “쓰레기라 해도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면 그것은 예술품의 재료

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가 피카소의 눈에 발견되고 그의 손에 붙잡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위대한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증거 하는 사도가 되었고,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자신의 소유를 모두 바쳐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의 자녀가 하

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만 하면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시작되고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로봇이 수술을 한다고?

외과 수술법은 지난 10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병든 조직을 잘라내기 위해 피부를 크게 절개해야 하는 개복이나 개흉은 피할 수 없었다. 1980년대 말, 복강경으로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이 처음 이루어진 후 복강경 수술이 보편화되었다. 복강경 수술은 배의 여러 부분에 구멍을 내고 복강경 수술 도구를 넣어 의사가 몸 밖에서 복강경 기구를 조종해가며 이루어지는 수술이다. 복강경 수술은 통증이나 합병증이 적고 수술 후 회복이 빨라 여러 암 치료에 도입되었다. 로봇수술이란 수술용 로봇이 환자의 몸에 3~5개의 구멍을 낸 후, 그곳으로 로봇용 카메라와 로봇 팔을 넣는다. 로봇용 카메라를 통해 10~15배 확대된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수술집도의가 로봇 팔을 원격 조정하며 수술이 이루어진다. 처음 로봇수술이 도입된 것은 1985년경이며 1990

년대에 들면서 복강경 수술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의료용 로봇기술이 통합되어 새로운 로봇이 탄생했다. 그것이 현재 로봇수술의 대명사로 알려진 미국의 ‘다빈치(DaVinci)’로봇이다. 2005년 국내에 다빈치 로봇이 도입된 이래 2013년 현재 31개 병원에서 총 38대가 사용되고 있다. 로봇수술은 3차원 고화질 영상이 주는 장점 이외에도 로봇 팔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 떨림이 없어 정교함이 필요한 수술에 효과적이고, 로봇 팔은 사람 손의 손목관절보다 운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람 손이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공간에서도 수술할 수 있어 기존의 복강경이나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보다 정확하고 정교하다. 로봇수술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는 전립선암 수술이다. 전립선

은 아랫배 속 깊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 전립선 주위를 지나는 신경들이 많아 수술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로봇용 카메라를 통해 10~15배 이상 확대된 3차원 영상을 보며 수술을 집도하면 주변신경들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직장암도 깊은 하부 직장부위까지 잘라내고 항문을 보존하는 수술을 할 때 로봇으로 수술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장주위의 자율신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 수술 후유증도 적다. 심장수술에도 로봇이 적용되는데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감염이 적은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 로봇수술은 수술의 안전성 논란과 고비용 문제로 성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국내 많은 의료진들은 로봇수술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 초심 지키기!

인도에 재색을 겸비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왕과 결혼해 행복한 삶을 누렸지만 일 년 만에 그만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슬픔을 견딜 수 없어 결국 왕비의 무덤 동쪽에 자신의 모습을 조각한 동상을 세워놓고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또한 왕비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호화로운 별장과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성을 건립한 후 맞은편 동산에 올라가 왕비의 무덤을 내려다보며 지냈는데,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웅장한 성과 별장 중심에 위치한 왕비의 무덤이 자꾸만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왕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 명령합니다. “저 무덤을 당장 치워 버려라!”

웰스의 단편소설 ‘무덤’의 스토리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했던 마음이 마지막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권력과 부가 생기고 환경이 바뀌면 곧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사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해야 하지만, 다니엘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도 ‘전에 행하던 대로’(단6:10), 또한 우리 목사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와 예배를 드린 어느 성도가 “이초석 목사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설교하시는 모습도, 여전히 귀신 쫓고, 여전히 병고치고, 여전히 성도들 머리에 손 얹고 일일이 안수해주시는 것도,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더군요. 피카소는 동심을 가꾸는데 40년을 보냈다고 하니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